



예거 르쿨트르, '디 아워 비포(The Hour Before)'를 통한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 발표

- 퍼포먼스와 정교한 하이 워치메이킹의 만남
- '디 아워 비포' 시리즈를 통해 공개된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 조슈아
- 창의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향한 여정

예거 르쿨트르가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케이팝 그룹 세븐틴의 멤버인 조슈아를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로 선정했다. 메종의 인터뷰 시리즈 '디 아워 비포(The Hour Before)'를 통해 공개되는 이번 협업은 예술성, 정밀성 그리고 장인 정신이라는 공통된 철학을 담아낸다.

진정성,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예술적 발전을 통해 완성된 여정

조슈아는 세븐틴의 멤버로 활동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세븐틴 멤버들은 음악과 퍼포먼스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며, 긴밀한 협업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조슈아는 이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존재감을 다져왔다. 차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그의 강점이다.

연습생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꾸준한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져왔다. 조슈아는 진정성과 팀워크,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왔으며, 이는 예거 르쿨트르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예거 르쿨트르에서 탁월함은 시간과 정밀함, 그리고 수많은 정교한 공정을 통해 완성된다. 각각의 부품과 조정, 마감 디테일에는 절제와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조슈아의 예술적 여정은 이러한 메종의 철학과 연결된다. 진정한 탁월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헌신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빛어진다.

존재감을 빛내는 균형감, 자연스러움, 그리고 절제된 우아함

조슈아의 스타일은 간결함과 절제된 우아함이 공존하며,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하다. 아티스트로서의 행보 역시 화려한 변화보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을 다져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무대 위는 물론 일상 속에서도 조슈아의 편안함과 진정성은 드러난다. 과하지 않은 자신감과 균형감 있는 스타일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과 닮아 있는 감각이다. 메종에게 세련미란 과시가 아닌 깊은 디자인에서 비롯된다. 깔끔한 라인으로 사랑받아온 리베르소처럼, 조슈아는 유연한 매력과 뚜렷한 개성으로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디 아워 비포 (THE HOUR BEFORE): 정체성을 빚어내는 숙련의 시간

예거 르쿨트르는 ‘디 아워 비포’ 시리즈를 통해 조슈아와의 새로운 여정을 소개한다. 조슈아가 직접 리베르소 케이스를 조립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인터뷰는, 메종과 조슈아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질문들을 통해 그의 가치관, 기억, 그리고 삶에 대한 시선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카메라 밖 인터뷰어와의 편안한 대화 속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차분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담아낸다.

‘디 아워 비포’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내면을 조명하는 시리즈다. 정교한 손끝의 움직임은 조슈아의 내면의 비추는 장치가 되며, 절제, 반복, 팀워크, 그리고 성장 등 장인 정신과 예술의 공통된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방식으로 촬영한 이번 에피소드는 스포트라이트 너머 조슈아의 사려 깊고 진솔한 모습을 담아낸다.

CEO 제롬 랑베르(Jérôme Lambert)는 “조슈아를 예거 르쿨트르 패밀리의 새로운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의 진정성과 절제된 태도, 그리고 헌신은 메종의 가치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디 아워 비포’를 통해 조슈아와 예거 르쿨트르가 공유하는 조용한 헌신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조슈아와 예거 르쿨트르의 만남은 진정성과 균형감, 그리고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존중을 공유하는 인물들과 함께해온 예거 르쿨트르의 여정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조슈아 소개

조슈아는 2015년 5월 26일 데뷔한 13인조 그룹 세븐틴의 멤버다. 유닛 그룹 보컬팀 멤버인 그는 특유의 미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세븐틴 음악에 산뜻한 매력을 더해왔다. 북미를 포함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는다. 조슈아는 최근 팝스타 앤더슨 팩(Anderson Paak)과 손잡고 영화 'KPOPS!'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참여했고, 이에 앞서 뉴 키즈 온 더 블록(New Kids On The Block), 핑크 스위트(Pink Sweat\$), 슬랜더(SLANDER) 등과도 호흡을 맞췄다. 또한 미국 골든글로브, 프로풋볼 슈퍼볼에 초청받아 높은 글로벌 인지도를 입증했다.

디 아워 비포 소개

‘디 아워 비포’는 예거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인터뷰 시리즈로,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낸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순간에 주목합니다. 예술가, 가수, 배우, 운동 선수 등 각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하며, 탁월함과 창의성, 그리고 헌신이라는 메종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한 인물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그 이전의 준비 과정과 고민, 그리고 묵묵한 노력의 시간을 함께 비춥니다. 워치메이킹의 장인 정신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는 탁월함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정성 있고 담백한 시선으로 풀어낸 ‘디 아워 비포’는 열정과 절제 그리고 오랜 헌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온 이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